

|           |   |            |
|-----------|---|------------|
| 지나주 침례 인수 |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br>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br>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개 | 2016 침례 인수 |
| 2명        |   | 20명        |

| 인천 교회 기도 제목   |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li> <li>○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li> <li>○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li> <li>○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li> <li>○ 강화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li> <li>○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li> <li>-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li> <li>-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li> <li>-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알게 하소서</li> </ul> |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6.16(목) 오전10시 학생센터

2.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 ① 일 시 : 6.14(화)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3. 제 5회 영파플 집회

-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 ⑤ 신 청 : 7.3(주일)까지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과천, 안산, 안양, 여주 교회 새길실뎌 훈련(6.18(토)~26(주일))

\* 각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지등 연결 대상자가 있으시면 각 교회 행정 봉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이재진(010- 2643-7967), 안산 김성배(010-7545-8087)  
안양 신 훈(010-4948-1952, 여주 김진명 (010-5790-6965))

《기타 사항》

- 1. 침례 : 3지역 신증급자매, 김애화자매
- 2. 결혼 : 3지역 김준수형제, 박장숙자매님의 아들 현우형제  
6.18(토)밤12시30분 그랜드호텔 웨딩의 전당1층 캔벤션홀에서 결혼합니다.(동인천역2번출구에서 셔틀버스운행)

3.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봄 장로 훈련 메시지 2

◆ 지나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5.30.(월) ~ 2016.06.05(주일))

| 지역   | 1지역 (66명) |    |    |   |   | 2지역 (82명) |   |    |    |    | 3지역 (94명) |    |    |    |    | 4지역 (87명) |    |    |    |    | 5지역 (75명) |   |    |    |    | 6지역 (35명) |   |   |    |    | 7지역 (22명) |    |    |    |   | 계   |    |     |     |     |
|------|-----------|----|----|---|---|-----------|---|----|----|----|-----------|----|----|----|----|-----------|----|----|----|----|-----------|---|----|----|----|-----------|---|---|----|----|-----------|----|----|----|---|-----|----|-----|-----|-----|
|      | 학         | 인  | 신  | 청 | 정 | 간         | 구 | 만  | 장  | 주  | 연         | 청  | 송  | 신  | 가  | 석         | 신  | 가  | 연  | 청  | 청         | 점 | 점  | 산  | 부  | 정         | 산 | 효 | 작  | 계  | 일         | 중  | 운  |    |   |     |    |     |     |     |
| 인수목표 | 120       |    |    |   |   | 157       |   |    |    |    | 144       |    |    |    |    | 154       |    |    |    |    | 146       |   |    |    |    | 82        |   |   |    |    | 40        |    |    |    |   | 803 |    |     |     |     |
| 주역상  | 20        | 12 | 12 | 9 | 7 | 6         | 5 | 14 | 10 | 10 | 10        | 16 | 15 | 2  | 23 | 15        | 20 | 20 | 16 | 11 | 7         | 3 | 6  | 18 | 10 | 10        | 9 | 9 | 4  | 20 | 23        | 14 | 18 | 10 | 6 | 9   | 10 | 13  | 9   | 461 |
| 기도   | 3         | 7  | 2  | 3 | 1 | 2         | 1 | 6  | 4  | 8  | 4         | 6  | 11 | 8  | 6  | 13        | 8  | 5  | 8  | 5  | 3         | 4 | 10 | 2  | 9  | 5         | 3 | 2 | 8  | 11 | 10        | 5  | 8  | 6  | 6 | 6   | 6  | 6   | 221 |     |
| 그물   | 8         | 7  | 9  | 9 | 4 | 4         | 2 | 6  | 6  | 11 | 5         | 9  | 12 | 12 | 9  | 11        | 13 | 11 | 9  | 5  | 4         | 4 | 8  | 6  | 6  | 6         | 9 | 7 | 11 | 13 | 15        | 9  | 5  | 8  | 7 | 12  | 7  | 299 |     |     |
| 아침부흥 | 10        | 8  | 8  | 7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
| 어린이  | 11        |    |    |   |   | 13        |   |    |    |    | 11        |    |    |    |    | 10        |    |    |    |    | 5         |   |    |    |    | 4         |   |   |    |    | 5         | 59 |    |    |   |     |    |     |     |     |
| 아빠노래 | 7         |    |    |   |   | 9         |   |    |    |    | 2         |    |    |    |    |           |    |    |    |    |           |   |    |    |    |           |   |   |    |    | 6         | 24 |    |    |   |     |    |     |     |     |
| 중고등부 | 8         |    |    |   |   | 1         |   |    |    |    | 5         |    |    |    |    |           |    |    |    |    |           |   |    |    |    |           |   |   |    |    | 8         | 7  | 3  | 32 |   |     |    |     |     |     |



#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http://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6. 12 16-24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mailto:triune@nate.com)

##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상을 가지고, 계시에 따라서, 몸 안에서 봉사함

행26:19 **아그립바 왕이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가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러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모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본다. 어린양을 드린 아벨에게는 이상과 계시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이 땅에서 난 소산물을 제물로 드린 것은 이상과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의 것만 기쁘게 받으시고 형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나 또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점차 나는 하나님은 이상에서 나온 제물이고,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온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벨이 바친 희생 제물은 이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창4:4, 히11:4),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지시한 적이 없는데 짐대를 밖으로 옮겨놓은 하인과 같다. 이런 하인을 고용하려는 주인은 없다.

노아를 보자.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일어나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와 이상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창 6:13-22).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난 것도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상을 주셨기 때문이다(12:1-4).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온 것 또한 그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유허절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어린양을 예비해야 하고, 어떻게 피를 문질러야 하고, 어떻게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밤에 신을 신고서 나갈 것이며(12:1-14),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1-8, 14:1-3)).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상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후에, 모세는 성막과 제단과 언약궤와 금 등잔대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자신의 총명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십 일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에 대한 하늘에 속한 청사진과 제사장 체계의 일을 계시하셨고, 모세는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에 따

라 그것들을 만들고 세웠다. 이것이 계시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수 1:26).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이상을 본 신언자들이다. 이상을 보지 않은 신언자가 없었고, 이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도 없었다.

구약이 그러했듯이 신약은 더욱 그러하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삼 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 주셨고, 하늘에 속한 관점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실제의 영이 되심으로 제자들을 모든 실패 안으로 이끄셨다(요 16:13).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이상과 계시로 가득하다(고후12:1, 열 3:3-5).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더욱 그러하다. '계시'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휘장을 열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님은 많은 이상과 표징들을 통해 요한에게 크고 중요한 계시들을 보여 주셨고, 이것들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신약은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계시들로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상과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상을 볼 수 있는가? 계시를 받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 이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동일하다. 이상과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 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도 여전히 책임은 있다. 바울을 예로 들면, 그는 이상을 보는 것과 계시를 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작스럽게 계시를 주셨다(행9:1-6). 바울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이다. 모세는 호렙 산에서 양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다(출3:1-10). 그는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오셔서 이상을 주신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런 일에 무관심 했을까?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본다면, 구약의 모세이든 신약의 바울이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세는 이상을 보기 전에, 주먹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신의 영광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 비록 그가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갔지만(9:11-15), 하

나눔은 그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방법은 틀렸지만 그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는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시90:10)라고 썼다. 모세는 팔십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핍가했는데, 그 핍가는 자신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방법과 역량이 이미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주셨다.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상은 모세가 사십 세 때에 가졌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길과 방법이 틀렸고 그는 마치 가시 돋친 막대기에 뒷발질하는 소와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었지만 하나님 섬기려는 갈망은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도 관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를 찾으셨고 이상을 주셨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갈망이 없는데도 그렇게 갑자기 이상을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람에게는 최소한 작은 갈망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로 이상을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갈망이다.

둘째로, 이상과 계시를 가지려면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딤후 2:21, 렘 15:19).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귀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천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곧 이상을 보지 못하고 계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천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교회생활을 한지 이십 년이 넘었지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이십 년 전이나 이십 년 후나 똑같다. 그 이유는 재물이나 재산 또는 가재이나 오래전에 배운 영적인 공과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를 배워야 한다. 다니엘서 10장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십일 일을 기다린 후에야(2-3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장래의 일을 말해주며 이상을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마 5:8).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리켜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너울이 벗겨진다. 너울이 벗겨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 주님이 바로 이상 그 자체이시자 계시 그 자체 이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것이 이상을 보는 것이고 계시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으면 이상을 볼 수도 계시를 볼 수도 없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이상과 계시가 있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며, 기다려야 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열려야 한다. 여러분 안에 가리하는 것이 없다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보여 주실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동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직접 이상을 보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바울은 이상을 보았지만 디모테가 가진 이상은 바울이 그에게 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성경에 디모데 자신이 이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다. 그가 본 모든 이상은 바울을 통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그대는 배운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딤후 3:14-15)라고 말했다. 이 말은 디모테가 받은 이상이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꼭 직접 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이상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받는 길 또한 동일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이의 이상, 사역, 인도 1장에서 발췌)*

봉사는 반드시 건축의 관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건축의 관념을 가진 사람과 건축의 관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 중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건축하는 돌을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 건축이 아닙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본래 범당했던 믿는 이가 열성적이 되고, 본래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유용한 재료가 되도록 하는 것도 건축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건축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일은 건축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관념 가운데 건축이 없다면 건축을 표방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건축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우리가 건축의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이상의 큰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모든 일을 다스려, 그 결과 하나님의 건축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이 건축의 관념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건축의 관념이 없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고 또한 영적인 생활을 배웠을지라도, 그는 전혀 건축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건축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건축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을 산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적인 공과를 배우고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참되게 건축된 사람은 분명히 건축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날 우리는 건축의 관념을 가져야 하고 또한 참되게 건축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단순히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며, 혹은 단순히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돕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여러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다. 곧 흙을 나르는 사람, 목재를 옮기는 사람, 톱질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비록 그들은 각자 다른 일을 맡고 있지만, 그들 각 사람 안에 있는 관념은 동일하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 집을 짓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의 관념 안에 있는 것은 톱질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나, 흙 나르기를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닌,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우리의 봉사 안에 건축의 관념이 있는가? 우리의 봉사는 건축의 관념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은 참으로 염속한 일이다. 하는 일은 다름지라도 목표는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는 것이다.

*(교회 건축의 이상과 예표와 실행 2장에서 발췌)*

## 복음 전파

**막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은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양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많은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에 관해 성경에서 무언가를 보기 원한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28:19). 성경, 특별히 신약에 있는 첫 세 권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원칙이 있다.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 복음서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셨으며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오'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공회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위해 주님께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는 또 다른 절반이 필요하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주님께 나온 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 모든 족속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야 한다.

### 복음 전파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균형 잡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주님은 그분께 오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온 후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항상 나오는 것을 알지만 나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물론 오늘날 밖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잡아야한다. '오' '가'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한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오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는 다른 면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전영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 곧 모든 민족에게 간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행할 의도와 진지한 갈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주님께 나오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나가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짧지만 흥미 있는 한 편의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 그 글의 작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날마다 최소한 10분 동안 주님께 말하고, 10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10분 동안 죄인들에게 말하고, 10분 동안 성도들과 말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 우리는 최소한 각각 10분씩 이러한 네 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해 보라. 만일 우리가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건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즉 시작할 때는 조금씩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균형 잡아야 한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을 포함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 전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균형 잡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모든 형제자매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복음전파로 균형 잡혀야 한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오는 이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보냈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우리가 심지어 모든 피조물에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구절은 "은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함

우리는 한 면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도록 도움 필요가 있고, 다른 한 면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을 다시 헌신하도록 도와야 한다. 비록 그들이 여러 차례 자신을 헌신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위해 다시 한 번 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자신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목적을 위해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님께 그들 자신을 드리는 기도 집회를 갖도록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교회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첫째 위임은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믿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지신들의 지방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매우 좋고 영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형제님들, 형제님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집회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형제님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인수는 몇 명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집회를 해왔고 약 이십 명의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그 수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와 같았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매우 좋고 영적이었지만 열매가 없었으며, 회심자도 없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나무가 참으로 살아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사람들을 얻는 데 열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옮긴이 그르키 알도록 여러 방법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다. 교회 지체들의 수는 항상 증가해야 한다.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더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매우 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상 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람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교회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믿는 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어린 믿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한 가지 항목은 그들이 매번 주님께 한 사람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주님께 한 해에 두 명 혹은 네 명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열 명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들이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할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매번 교회에 한 명의 새로운 믿는 이를 인도한다면 약 삼십 년 후에는 온 세상이 복음화 될 것이다. 첫째해 백 명으로 시작한다면, 이듬해에는 이백 명이 되고 매년마다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실행하기만 한다면 365일 동안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은 쉬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말한 것처럼 첫째 방법은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와 친밀한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려한다면 매년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